

'밀리면 끝장' 민주당,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

중부세 추가 강화 입법 추진... 공급 확대에도 방점 다주택자 명단 발표 미뤄 출선수범 않는다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며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6·17 대책에 이어 후속 조치를 공언했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민심 이반 현상마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 가운데 다주택자 명단 발표는 미루고 있어 집권 여당으로서 출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김태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

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중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춰 전반적인 싼호 세율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고안 중이다.

속도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 정책위는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검토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의 단호한 요구"라며 "중이 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중부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급 확대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자금 동원력이 떨어지고 가정이 낮아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3040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측면

도 있다. 정부는 특별공급과 관련해 가점제 청약 물량을 줄이는 대신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3기 신도시에 이어 경기도 광명이나 안산 등지에 4기 신도시가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여론 악화의 기폭제가 된 다주택 공적자 문제와 관련해 공천 때 1주택을 서약한 민주당 의원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관찰 중이다. 원내 관계자는 "총선 후 2년 이내 처분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이달 말 재산 공개 때 현황이 나올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세론' vs '전세론' ... 민주당권 경쟁 후끈

이낙연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 김부겸 전 의원은 9일 선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7일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의 출마 선언과 함께 막이 오른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8·29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출마 선언문에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주도하며 정권 재창출의 확고한 기반을 닦았다는 각오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개별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등 대국민 소통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는 9일 출마 선언을 한다. 7~8일에는 이 의원의 텃밭인 광주와 전북에서 지역 언론 간담회를 하는 등 호남 민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호남 방문 기간 자동화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지역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권주자이기도 한 두 사람이 당권을 놓고 맞붙으면서 이번 전대는 사실상 대선 전초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의원의 '대세론'과 김 전 의원의 '전세론'이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민주당 내의 역학구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의원이 대권주자 선호도 선두 독주의 기세를 몰아 당권 레이스에서도 대세

론을 이어갈 것이라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김 전 의원은 이 의원의 당권-대권 독식 가능성을 부각하며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대가 아직 40일 이상 남았다. 점에서 이 의원이 당권 주자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 의원이 기존의 '몸조심' 모드로 대세론을 이어가려 한다면 김 전 의원의 강력한 견제에 상당한 고전을 하지 않느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이 의원이 위기를 주도하며 정권 재창출의 확고한 기반을 닦았다는 각오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개별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등 대국민 소통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는 9일 출마 선언을 한다. 7~8일에는 이 의원의 텃밭인 광주와 전북에서 지역 언론 간담회를 하는 등 호남 민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호남 방문 기간 자동화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지역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권주자이기도 한 두 사람이 당권을 놓고 맞붙으면서 이번 전대는 사실상 대선 전초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의원의 '대세론'과 김 전 의원의 '전세론'이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민주당 내의 역학구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의원이 대권주자 선호도 선두 독주의 기세를 몰아 당권 레이스에서도 대세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서울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 연합뉴스

“국토위·기재위 국회의원 30% 다주택자”

참여연대, 매각 서명 운동

주거-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 17명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다주택 고위공무원 등에게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거주 목적의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민주당 김보배·박상혁·조오섭 의원과 통합당 김미

애·서범수·서일준·성일중·정동만·이양수 의원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또 기재위의 민주당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과 통합당 박덕흠·송인석·유경준·윤희숙·류성걸 의원도 2채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복합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의 김희재 의원(여수)은 서울에 두 채의 아파트를, 기재위의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은 경기도 수원과 동탄에 아파트 한 채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은 조만간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양 의원은 수원 아파트는 시부모를 모시다가 분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의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은

광주 주택과 담양에 거주하는 어머니 주택의 상속 지분 1/3을 소유하고 있어 소위 수도권 다주택자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30%(56명 중 17명)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 실장급 2명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과 실장급 1명 등 총 5명의 고위 공무원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이 최고 민생과제”

문재인 대통령, 수석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서삼석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불출마

이낙연 의원 대표 도전에 영향 양향자 의원 출마 여부 고심중

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광주-전남을 대표해 최고위원 출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서삼석 의원(영암-부안-신안)이 6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선출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보다 훌륭한 분들이 지도부에 나서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면서 “지금 농해수위 간사의 역할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막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서 의원의 불출마가 이낙연 의원의 대표 도전의 그늘에 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남 영광 출신의 이 의원이 대표에 도전하면서 같은 전남 출신인 서 의원의 최고위원 도전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

기에 전북의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 도전에 나서면서 호남 표심의 분산도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가운데 3선인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도 일찌감치 이낙연 전총리의 당권도전에 힘을 보태겠다며 최고위원 불출마의 뜻을 밝혀 잠재적 최고위원 후보로는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만 남은 상태.

양 의원은 출마 여부를 아직 고심 중이며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 의원은 최근 삼석 이재용 부회장의 등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당내 및 지역 당원들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장·전남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지역 의원들이 은근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서 세력·세대교체가 이뤄진 지역 정치권이 이슈를 선정하는 과정만 도전보다는 적당히 몸을 사리며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